

의상·간판다툼 ‘숨막힌 견제’ 현실과 드라마 속 여성 앵커

간판 뉴스 앵커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부터 협찬 의상을 둘러싼 숨 막히는 견제까지. 드라마 속 여성 아나운서들은 꼬리야 흠개는 달린 고단수들로 묘사된다.



tvN 주말극 ‘날 녹여주오’ 속 윤세아.

지난해 김남주를 재발견하게 한 JTBC 드라마 ‘미스티’ 속 고혜란은 보도국 내 권력 다툼의 최정점에 선 인물이었다. 사후부 말진 기자에서 9시 뉴스 앵커 자리까지 꺾잔 혜란은 성공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모든 걸 가진 여자라 불리며 여성들의 ‘워너비’로 등극했다.

혜란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읽는 ‘전달자’가 아니었다. 탁월한 아나운서 능력을 기반으로 직접 뉴스 아이টে임을 고르고 배열하는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그 권한을 두고 보도국장, 언론사 경영진, 나아가 사회 주요 인사들과 갈등을 빚는다.

또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치고 올라오는 유능한 후배들을 견제하는 일까지 게을리할 수 없었다.

혜란과 비교해 최근 주말극 속 여성 아나운서들은 이제 막 언론인으로서 발을 떼 정전태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로 묘사된다.

최근 시작한 KBS 2TV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의 김설아(조윤희 분)는 ‘흠수저’이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아침 가득한 아나운서이다.

첫 방송에서는 선배 아나운서로 깜짝 출연한 오정연과 호흡을 맞추며 협찬 의상을 차지하기 위한 아나운서 선·후배 간 기 싸움을 보여줬다. 오정연은 설아의 협찬 의상을 빼앗으며 “너희 부모님 치킨 가게 한다며? 개전에서 용선다”고 독설

‘미스티’부터 ‘사풀인풀’ ‘날 녹여주오’까지

현직 아나운서 “비슷하지만 상당 부분 달라”

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날 첫발을 댄 tvN 주말극 ‘날 녹여주오’에서는 윤세아(아역 채서진)가 여성 앵커 나하영으로 분했다.

하영은 자신의 연인인 마동찬(지창욱) PD의 냉동갑술 프로젝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 메인 뉴스 앵커 자리를 받고 합구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앵커 발탁을 둘러싸고 다른 아나운서들은 뒷말이 무성하다.

그렇게 동전이 실종된 동안 하영은 앵커로서 승승장구하지만, 20년이 지나 동전이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서 위기에 처한다.

드라마에서 주로 야심과 독기 가득 찬 모습으로 묘사되는 데 대해 실제 여성 아나운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론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상당 부분은 다르다”였다.

한 지상파의 중견 아나운서는 “대부분의 경우 앵커는 진행자로서 뉴스 상황 전반에 대한 준비와 공부부를 많이 해 이해도는 높지만, 기사 배열 등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편”이라고 극과 다른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의상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 뉴스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있고, 각자 마음속으로 질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웃었다.

그는 간판 뉴스 앵커역을 둘러싼 경쟁에 대해서는 “7~8년 전부터는 간판 아나운서 발탁을 위해 내부 오디션이 치른다. 그게 굉장히 치열하다”며 “물론 ‘비교적’ 공정한 절차라 가끔 변수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처럼 무조건 ‘라인’을 타거나 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00 로보카 폴리 30 뽀롱뽀롱 뽀로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0 당동댕 유치원 30 띠띠뽀 띠띠뽀 45 최고다! 호기심딱지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벨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출동! 슈퍼왕스 15 마사와 곰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	10 SBS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다큐 공감(재) 50 한식의 마음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00 12 MBC 뉴스 20 경성만타지	00 SBS 12뉴스 55 정재영의 이슈IN(재)	00 EBS 정오뉴스 10 다문화 고부 열전(재)
1	00 문화산책 50 빛고을행복아가데미	10 트레킹노트	20 헬로키즈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EBS 다큐프라임 55 별일 없이 산다(재)
2	50 미나디Q(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뉴스브리핑	45 물랑 55 꼬마버스 타요(재)
3	10 전라도 매력청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10 로보카 폴리(재) 25 레오나모 스타일의 모험 55 출동! 슈퍼왕스(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벨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25 마사와 곰 40 당동댕 유치원(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별 1+1(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0 EBS 뉴스 20 그림을 그려요 45 띠띠뽀 띠띠뽀(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세상에 이런일이	00 퓌! 퓌! 보니 하니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TV블로그 퓌지락	00 스파이더맨 30 생방송 만다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SBS 8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00 TV로 보는 원작동화 30 아기 동물 귀여워 50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9	00 KBS 뉴스 9			00 리틀 포레스트	45 다문화 고부 열전
10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05 스트레이트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05 겨례말모이	20 동상이몽2	35 별일 없이 산다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낭만클럽	40 나이트라인	25 지식의 기쁨(재) 55 지식체널(재)

송광사와 그 주변에 깃든 동식물 생태계 EBS ‘다큐프라임’ 2부작 오늘 첫 방송

EBS 1TV는 오는 7일 오후 9시 50분 ‘다큐프라임’에서 ‘송광’ 1부를 선보인다고 6일 예고했다.

‘송광’은 우리나라 삼보(三寶) 사찰 중 하나인 순천 송광사와 그 주변에 깃들어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태를 불교철학과 접목해 풀어나간 자연 다큐멘터리다.

송광사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에서 손꼽히는 참선 수행 도량이다. 또한 수많은 고승과 국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승보(僧寶) 사찰이다.

그러나 그간 스님들의 선 수행 저해를 우려해 방송과 기타 언론에 쉬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송광’은 어렵게 1년 6개월 동안 수행자들의 은둔지인 송광사 모습을 기록했다.

송광사를 품고 있는 조계산은 빼어난 자연 풍광과 함께 생태학적으로 보

기 드물게 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생물학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수많은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송광’은 사계절 흐름 속에 수행자 모습과 순환하는 주변 동식물 모습을 불교철학으로 풀었다. 2부는 8일 밤 9시 50분 방송한다. /연합뉴스



7일 첫 방송되는 EBS 자연 다큐멘터리 ‘송광’은 수행자들의 1년 6개월 동안 모습을 기록했다.

스크린·드라마 속 필수 감초 ‘1인 방송’

‘엑시트’ ‘검블유’ ‘위대한쇼’ 등 주요 소재 등장

영화와 방송에서 크리에이터 혹은 1인 방송 진행자가 필수 감초로 활약한다.

최근 다양한 극에 등장하는 1인 방송 플랫폼과 진행자는 시대적 트렌드를 보여줌과 동시에 시청자를 대신한 응원단장, 주인공의 친구, 갈등 해결사 역할을 도맡는다.

고충 빌딩을 오가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전개와 이상근 감독의 절제된 연출력, 주연 조정석, 윤아와 ‘명품 조연’ 고두심, 박인환, 김지영 등이 열연해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엑시트’에서는 용남(조정석 분)과의 주(윤아)의 탈출 과정을 드론으로 촬영해 전국으로 중계하는 장면에서 대도시 관, 유행, 슈기 등 스타 크리에이터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극중 크리에이터들은 주인공들의 탈출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 개개인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2019년 대한민국이라는 현실과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 이 감독은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한 데 대해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세대가 많이 활용하고 이슈가 되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소

재 면에서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여름 방영한 tvN 수목극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 W(이하 ‘검블유’)는 실시간 검색어를 둘러싼 포털사이트 업계의 고민,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와 젠더 감수성이 돋보였다.

‘검블유’는 큰 틀을 지키면서도 최근 IT업계 화두인 동영상, 1인 방송까지 극속에서 녹이면서 디테일한 재미를 살렸다.

‘탕수육 이모티콘’에서 시작한 ‘부먹’(소스를 부어 먹는 것)과 ‘찍먹’(찍어 먹는 것) 논란을 이용해 포털 업체 ‘바료’의 대표 민홍주(권해효 분)가 소셜미디어에 사과 영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더욱 큰 화제로 만들어가는 장면, ‘차현(이다희)-표준수(김남희)-BJ 윤동주(조혜주)’를 잇는 삼각관계 등은 현대인 생활 깊숙이 자리한 동영상 서비스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검블유’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BJ 윤동주 캐릭터에 대해 ‘생각 없는 듯 보이지만 그녀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무엇을 소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연대생 학부모 앤젤리나 졸리

“말레피센트 연기 도움”

“저도 동지를 떠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준비하는 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젠 ‘연대생 학부모’가 된 앤젤리나 졸리(44)는 성동구 왕십리CGV에서 진행된 영화 ‘말레피센트’ 라이브 콘퍼런스에서 아들 매덕스를 연세대학교로 유학 보낸 경험이 자신의 연기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덕스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있다.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면 저 또한 그만둘 만큼축스럽다”고 덧붙혔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말레피센트’는 지난 2014년 개봉한 ‘말레피센트’ 속편이다. 영화는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마녀 말레피센트 중심으로 파격적으로 재해석해 화제를 모았다.

앤젤리나 졸리는 이번 영화에서도 ‘디즈니에서 가장 사악한 마녀’라는 별명이 붙은 말레피센트를 연기했다.

2편은 마녀에 대한 인간들의 편견이 여전한 세상, 오로라 공주(엘레닝 분)가 필립 왕자(해리스 딕킨슨)와 결혼하겠다고 말레피센트한테 이야기하며 시작한다.

오늘의 운세 김도환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0월 7일 (음력 9월 9일)

子	48년생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60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라. 72년생 겸손한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84년생 못지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午	42년생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줘라. 54년생 정면승부를 걸어보라. 66년생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삼가라. 78년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丑	49년생 첫인상을 너무 믿지 말라. 61년생 뽀뽀는 어떻게든 잘 된다. 73년생 하늘은 내 편이니 걱정을 말라. 85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未	43년생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55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67년생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라. 79년생 첫인상에 속지 말라.
寅	50년생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62년생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부른다. 74년생 합리적 이유 없는 호의를 경계하라. 86년생 구하면 얻으리라.	申	44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56년생 일단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라. 68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80년생 다소 서운한 일이 있겠다.
卯	51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63년생 좋은 사람을 소개 받는다. 75년생 기대보다 결과가 좋겠다. 87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酉	45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57년생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날이다. 69년생 명분 없는 싸움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81년생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길하다.
辰	52년생 이상과 현실을 구별해야 한다. 64년생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76년생 실속은 없고 도통 힘들기만 하다. 88년생 능력을 한껏 펼친다.	戌	46년생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58년생 되는 일이 없는 한심한 날이다. 70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신망을 얻는다. 82년생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라.
巳	41년생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핏줄뿐이다. 53년생 운명적인 만남이 있겠다. 65년생 일단 시작만 하면 잘 된다. 77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亥	47년생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라. 59년생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71년생 고민과 주름살만 늘어간다. 83년생 싱글은 인연을 만난다.